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5년
2016년 8월 1일
음력 6월 29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0년 제201호

청소년 바른 인성 형성 프로그램 불교총지종 전국 청소년 한마음캠프



▲ 캠프에 참가한 200여명의 청소년들

총지종이 주관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불교총지종 한마음캠프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용인에버랜드에서 열렸다.

이번 캠프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참가한 총 31개 팀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스스로 여행을 계획함으로써 자립심을 키우고 팀과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인식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시기에 바른 인성을 형성하는데 바탕을 마련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 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이번 캠프에서 후기 발표를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7월 25일 오후 2시 30분 에버랜드 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통리원 재무부장 원당 정사의 사회와 총무부장 우인 정사의 집공으로 입제법회를 봉행 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환영사에서 “힘들고 지루했던 학교생활은 잠시 접어두고 ‘한마음캠프’에서 낯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라며 새로운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를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 총무부장 우인 정사, 재무부장 원당 정사, 재단 사무국장 서강 정사 등 집행부와 심사위원으로 중앙 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 밀행사 주교 도현 정사, 실보사 주교 덕광 정사, 만보사 주교 승원 정사, 건화사 주교 법상 정사, 단음사 주교 도우 정사가 동참했다.

이번 캠프는 외부강사 강연, 나를 찾아 떠난 여행 후기 발표, 장기자랑과 에버랜드 워터 파크 캐리비안베이 물놀이, 놀이공원 즐기 등 심신을 조화롭게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입제식을 마친 참가자 들은 에버랜드 워터 파크에서 한여름을 날리고 첫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아침정송으로 시작한 둘째 날 일정은 「교육센터 마음의 씨앗」 김찬호 부소장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김찬호 부소장은 “인간은 정교한 손의 동작과 생각하고 연산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학습과 연산의 능력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지금의 인간보다 우수한 능력을 만드는 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사람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한 감정을 지닌 특별한 존재이다. 청소년 시기는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감정을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우리보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라며 청소년 시기의 다양한 경험으로 감수성을 아름답게 키우자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2일 7월 10일까지 시행된 ‘나를 찾는 여행’에 참가한 31개 팀의 여행기 발표가 있었다. 교정부장 범일 정사의 사회로 시작된 발표회는 총무부장 우인 정사가 심사기준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했다.

광수생각(박승진의 6명) 팀의 경기도 퇴촌 천진암 답사 및 부산지방법원 판사님으로부터 청소년 범죄에 관한 특강을 들었던 여행기 보고를 시작으로 총 31개 팀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 중간에는 참가학생들의 장기자랑도 있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 했다. 오후 일정으로는 에버랜드 놀이공원 투어와 야간 불꽃놀이 관람이 있었다.

셋째 날 아침 정송과 공양을 마친 참가 학생들은 「자기치유명상심리연구소」 인행선 소장의 ‘소리명상과 마음보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인행선 소장은 소리를 통한 명상을 하는 방법과 학생들이 아는 쉬운 예를 들어 소리명상의 효과를 설명했다.

선망 조상불공 원만 회향과 국가 안위를 위한 불사 전개

총기45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봉행



▲ 경북 울진 엑스포장에서 봉행된 부산·경남교구 호국안민 기원 대법회

불교총지종은 7월 16일 각 교구별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하반기 49일 불공 기간 동안 전국 서원당에서 봉행된 국가 안위를 위한 발원과 조상불공의 원만한 회향을 서원하는 자리였다.

서울·경인 교구(교구장 범정 정사)는 경기도 양평 SN 유스호스텔 대강당, 부산·경남 교구(교구장 정인화 전수)는 경북 울진 엑스포장, 대구·경북 교구(교구장 안성 정사)는 전북 무주 종합수련관, 충청·전라교구(교구장 지정 정사)는 전북 부안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각각 법회를 봉행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호국안민기원법회 법어에서 “부처님께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여 불살생을 제일 계명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불살생계는 살생을 금할 뿐 아니라 죽여가는 생명을 구제하고 병들은 중생을 보살피고 이웃의 극빈한 자를 도와주라는 적극적인 보살행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에는 살인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더구나 동지 없는 살인조차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

한 때에 우리 불자들은 더욱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살생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계명을 적극적인 보살행으로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교경전을 보면 ‘바라는 바 있어 기도할 때 방생하면 소원을 성취하게 되며, 죽여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은 기도하는 목적

을 성취시켜 주며, 살아생전의 모든 죄업을 씻고 극락왕생하기를 바란다면 방생을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라며 불살생과 방생의 공덕을 설명했다. 이날 법회 후에는 각 교구별로 지역 사찰 참배가 이어졌다. (관련기사 5면)

양평=김종열 기자

지 면 안내

1면 전국 청소년 한마음 캠프

2면 김기자가 가다
“생명나눔운동”

3면 정각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취미교실 개강

5면 호국안민기원대법회

6~7면 한마음 캠프 화보

11면 서하보살의
불교문화산책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

그치지 않는 통일의 노래



| 일시 | 2016년 10월 1일 토요일 저녁 6시 | 장소 | 부산 동해 중학교(부산시 동래구 소재)

주최 불교총지종

주관 부산·경남교구 정각사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김기자가 가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 나눔 그 마지막 가르침의 실천



기상 관측 이후 최고의 더위를 기록하고 있는 올해의 7월에 총지종은 종단의 큰 스승 두 분의 열반을 맞았다. 그중 법장화 지수님은 평생 수행의 도구로 쓰신 당신의 법체를 병고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고 사바에는 하나도 남긴 것 없이 완전한 공의 세계로 드셨다.

운회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의 사생관은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성불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바로 밀교의 즉신성불 사상이다. 성불은 누가 누구를 했다 안 했다 구분할 수는 없다.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몸은 그저 인연 따라 모인 사대의 결합체인 것이다. 그렇다면 불자라면 누구나 수행의 도구로 자신을 성불로 이끌어 준 육신을 병고에 힘들어하는 중생과 같이 나누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장기 이식과 사후 시신 기증에 관한 현황을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불교계의

방편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기증의 종류

사후 기증이라고 뇌사 시 이식이 가능한 장기들은 모두 기증하는 것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려면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청서에 사후 기증 서약을 한 경우 반드시 가족들에게 장기기증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있다.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시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등록자 카드를 보내줄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쓸 수 있도록 장기기증 희망자 스티커를 보내준다. 정부에 장기기증 센터가 있지만 신청 접수기관은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곳이 있다.

뇌사자의 경우 폐, 심장, 눈, 췌장, 간, 뼈, 피부 등 거의 신체 대부분을 이식할 수 있다. 생체 장기이식의 경우 상당히 제약이 많고 특히 신장 같은 경우는 기증자도 건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분야다.

뇌사 시 장기기증과는 별도로 각막 기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자연사 하더라도 각막기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식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각막기증은 뇌사 시 장기기증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후의 신체만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시신기증”이라고 하며, 이것은 공인된 장기기증협회와 각 의과대학에서 접수를 받는다. 보통 사후 약 1~2년 간 해당 의과대학에서 의학 연구용으로

사용한 뒤에 화장을 하게 된다. 화장 후 10~15년간 의과대학 안팎에 마련된 납골당에 무료로 안치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이미 시신기증을 하겠다고 하여도 별도로 유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기증’에 대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머리카락 기증도 존재한다. 보통 암이나 백혈병 치료로 머리카락을 상실한 환우를 위한 것이다. 단, 조건으로 길이가 최소 25cm 이상이어야 하며 염색과 파마를 하지 않은 생머리이어야 한다.

불교계의 장기 기증기관

불교계에서도 오래전부터 장기기증 단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로 1994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희망등록 전문 홍보 교육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조혈 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공익법인

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처님께서 “나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 우주 만물의 기운이 필요하다”고 남기신 말씀을 바탕으로 그만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 몸을 아끼듯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눔의 시작이라는 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기이식만을 마지막 치료수단으로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장기 부전의 고통 속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나눔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장기 기증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자 이제 우리도 생명을 나누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참 보시의 정신을 실천하는 운동에 동참해보자. 자신의 형편에 맞는 나눔으로 지, 수, 화, 풍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육신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써보자. 문의전화 (02)737-0850

취재·구성=김종열 기자



인터뷰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사감행정 신임 사감원장 안성 정사

♣ 반갑습니다. 안성 정사님 먼저 사감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면을 통해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국의 사원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종단 인사에서 총지종의 사감원장에 임명된 안성 정사입니다. 미약한 저에게 종단의 중책을 맡기신 효강 종령 예하께 사은(謝恩)의 예를 올립니다. 부족한 제가 종단의 사감업무를 무사히 해낼지 걱정이 앞섭니다.

전임 사감원장님의 원만한 일처리를 지켜본 저로서는 사감 업무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 사감 업무의 운영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모든 사감위원들과 소통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사감원의 임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 사감원 운영 방안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종단 최고 감찰 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풍기를 규율하고 종단의 기강을 확

립하는데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그러나 질타와 추궁,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개선과 선도, 발전과 혁신을 위한 작업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법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민주적인 승가 본연의 모습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종단 발전을 위한 발걸음이라 여기고 사감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항상 커다란 눈과 밝은 귀로 보고 들음으로써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사감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

전국의 사원에서 교화 발전을 위해 맡attel을 가리지 않고 정진 수행해 오신 선배 스승님들과 도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저 자신이 먼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중책인 동시에 영광의 자리인 만큼 정진 노력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며 먼저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며, 사원과 교도 가정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 자비와 만복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어린이집 임직원 교육



불교 총지종 중앙교육원(원장 화령 정사)은 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교사 및 임직원 정기교육을 6월 30일 오후 6

시 통리원 반야실에서 개최하였다.

사회복지재단 산하 일원어린이집, 초록어린이집,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교사 및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는 불교총지종 소개 동영상과 함께 종단의 현황을 설명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란 주제로 강의하였다. 이어 초청강사 노윤경 선생이 「문제 인식 방법과 해결」이라는 주제로 코칭기법 강의를 있었다.

교육을 마친 어린이집 교사 및 임직원들은 서원당을 참배하고, 본존 및 법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교육을 마쳤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관 성 사	김 병 석	6/28	10,000
	인 선	7/25	20,000
	신 막 심	7/20	20,000
	대 관	7/25	10,000
관 음 사	원 봉	7/20	10,000
	지 선 행	7/20	10,000
	밀 공 정	7/25	10,000
	법 수 원	7/25	10,000
기 로 스 승	법 장 화	7/25	10,000
	법 지 원	7/25	10,000
	불 멸 심	7/25	10,000
	사 홍 화	7/25	10,000
상 지 화	수 증 원	7/25	10,000
	선 도 원	7/25	10,000
	총 지 화	7/25	10,000
	안 주 화	7/25	10,000
일 성 해	강 순 시	7/13	10,000
	이 복 남	7/13	10,000
	이 희 권	7/22	10,000

밀 인 사	이 희 권	6/28	20,000
	전 세 형	7/5	30,000
	정 정 희	6/28	5,000
	이 기 상	7/11	10,000
	안 옥 진	7/11	10,000
	이 성 수	7/11	10,000
	박 주 연	7/11	10,000
만 보 사	이 수 연	7/11	10,000
	정 덕 순	6/30	10,000
벽 룡 사	양 정 현	7/16	10,000
	양 지 현	7/16	10,000
수 인 사	정 순 득	7/15	10,000
	무 명 씨	7/5	10,000
선 립 사	심 지 장	7/14	10,000
실 지 사	송 우 섭	7/13	10,000
	박 병 성	6/27	20,000
	조 성 우	7/4	10,000
삼 밀 사	이 현 숙	7/8	50,000
일원어린이집			
	구 미 자	6/30	10,000
	이 준 동	7/25	10,000

운 천 사 정 각 사	김 지 영	7/25	10,000
	하 재 희	6/27	50,000
	하 재 희	7/25	50,000
	김 용 미	7/25	10,000
	김 용 미	6/27	10,000
	무 명 씨	7/18	20,000
	변 순 개	7/5	10,000
	탁 상 달	7/14	20,000
자 석 사 지 인 사	탁 상 달	6/28	20,000
	조 성 화	7/25	10,000
	김 문 수	7/13	10,000
	신 말 심	7/18	10,000
	승 효 제	7/20	10,000
	허 성 동	7/20	30,000
	초록어린이집		
	황 화 성	7/25	30,000
황 화 성	6/27	30,000	
총 지 사	박 정 희	7/14	10,000
	법 등	7/4	30,000
	김 병 관	7/20	10,000
	손 경 옥	7/15	10,000

	백 지 순	7/6	30,000
	신 용 도	7/14	10,000
통 리 원	김 평 석	7/20	10,000
해 정 사	최 영 레	7/20	10,000
화 음 사	무 명 씨	6/30	10,000
	인간방송	7/4	30,000
	무 명 씨	7/4	10,000
흥 국 사	지 정	7/20	20,000
사원명무기명			
	정 재 덕	7/8	20,000
	김 갑 선	7/19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6월26일부터 7월25일까지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회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송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아낌없이 주고 가련다」 법체(法體) 고려대 의대 기증 불교총지종 전 중앙종의회 의장 법장화(法藏花) 지수 열반

충기45년 7월 12일 열반 세수 90세, 법랍 45년



▲ 법장화 지수 영단

불교총지종 원로 스승인 법장화 지수(세수 90세, 법랍 45년)가 충기 45년 7월 12일 화요일 열반에 들었다. 불교총지종은 법장화 지수의 영단을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마련했다. 영결 추선불사는 7월 14일 오전 12시 총무부장 우인정사의 집공과 재무부장

원당 정사의 사회로 고려대 안암병원 영결식장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전국의 스승 및 교도, 유가족 200여명이 동참했다. 유가족 대표 박병우씨는 고결사에서 “산보다 바다보다 높고 깊으신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아 오리까”라며 부모로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추도사에서 “평생 검소한 생활을 하시며, 수행과 교화를 위해 매진하신 스승님의 넋은 자리를 어찌할까 막막합니다. 수행의 도구로 삼으셨던 법체마저 중생구제를 위한 의학 발전을 위해 연구용으로 기증하고 떠나신 스승님은 후배 승직자의 표상으로 영원할 것입니다.”라고 큰 가르침과 베풀어 주고 떠나신 스승님을 추념했다. 교도대표 밀인사 신정화장 박수빈 보살은 조사에서 “이젠 이 생애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날개를 잃은 어린 새처럼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며 스승님

의 열반을 슬퍼했다. 추선불사는 스승과 교도들의 법장화 지수에 대한 깊은 슬픔과 극락왕생을 위한 서원으로 마무리하고, 스승님의 법체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향했다. 원정대정사와 함께 총지종의 입교개종(立敎開宗)을 함께한 법장화 지수는 평소 온화한 성품과 꼼꼼한 일처리로 종단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진언염송을 평생의 수행으로 삼고 교화에 매진한 법장화 지수는 수행의 도구로 삼았던 법체마저 중생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과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함으로써 완전한 무소유와 공의 세계에 들었다. 1927년(丙寅)생인 법장화 지수는 1972년 충지종 중앙교육원을 수료하고 승직에 들었다. 1978년 10월 밀인지 대전수에 1984년 4월 출세간위 지수에 품서 됐다. 밀인사 주교, 총지종 유지재단 이사, 사감부장, 교정부장, 감사위원, 종의회 의원, 중앙종의회 의장 등 종단의 주요 요직을 거쳐 1994년 기로원에 진원했다.

불교총지종 전 중앙종의회 부의장 법정(法靜) 대정사 열반 충기45년 7월 19일 열반 세수 82세, 법랍 35년



▲ 법정 대정사 영결 추선불사

불교총지종 제7대 중앙종의회 부의장을 지낸 기로 스승 법정 대정사(세수 82세, 법랍 35년)가 충기 45년 7월 19일 화요일 열반에 들었다. 영결 추선불사는 7월 21일 오전 10시 총무부장 우인정사의 집공과 재무부장 원당 정사의 사회로 울산 21세기 병원 영결식장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전국의 스승 및 교도, 유가족 200여명이 동참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추도사에서 “중

단과 저희들의 크나큰 인연을 생각하시어, 오늘은 비록 저희들 곁을 떠나 극락정토에 가시더라도 계속하여 종단 발전과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저희들을 하루속히 인도해 주시옵고, 무연과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지혜와 성취의 길로 들게 하소서”라며 스승님의 크나큰 법은(法恩)을 추념했다. 스승대표로 조사를 한 부산·경남 교구장 정인화 전수는 “군건한 사명감으로 깊

은 신심과 발심으로 일관해 오셨던 종단 생활, 오로지 중생구제를 위해 한평생을 살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영육을 같이 나누며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중생제도의 본회를 남김없이 펼쳐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바빠 가시니 통애의 큰 슬픔은 끝이 없습니다.”라고 스승님의 열반을 슬퍼했다. 추선불사는 스승과 교도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서원과 부산·경남 만다라합창단의 추모곡으로 마무리했다. 법정 대정사는 금강 같은 신심으로 수행과 교화에 매진해온 종단의 큰 어른이다. 1934년(甲戌.양력 35년 1월 15일)생인 법정 대정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나 동아대학교 영문과를 거쳐 1982년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을 수료하고 지송급 법사로 승직에 들어 1994년 밀인지 대정사에 품서 됐다. 중앙종의회 의원, 총지종 유지재단 감사, 학교법인 관음학사 이사 및 감사, 제7대 중앙종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정각사 주교 대행, 혜정사, 법성사, 법황사, 일상사 주교를 역임했다.

정각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취미교실 개설

7월부터 스포츠 댄스 등 5개 강좌 시작



▲ 스포츠 댄스 강좌에 참가한 지역주민과 교도들

충지종 부산 지역 중심 사찰인 정각사(주교 법상인 전수)는 7월 1일부터 지역 주민과 교도들을 위한 취미교실을 개강했다. 다도, 한국화, 합창, 스포츠댄스, 경

전교실 등 총 5개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과 교도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스포츠 댄스 강좌는 초기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 강좌로 자리를 잡았다. 정각사는 최근 명륜동 재개발 사업의 완료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자리를 잡은 대형 사찰로 변신했다. 온천 로터리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 중산층의 새로운 주거지로 변모한 정각사 주변은 충지종 부산 정각사 교화 신화를 다시 일으키는 청신호로 평가된다. 정각사는 주민들을 위한 쉼터 역할을 자청하고,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할 예정이다. 부산=정각사 이상록 통신원

전당건설위원 및 관성사 건축 현장소장

7월 29일 건설부 김병구 소장 임명



▲ 김병구 소장 임명장 수여

충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7월 29일 전당 건설위원회 선임 위원과 관성사 건축 현장 소장인 건설부 김병구 소장을 임명했다. 현재 건설 중인 서울 사대문 종합문화도량 관성사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통리원은 현장과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 김 소장을 파견하고, 계획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전당건설위원회도 건축 전문가인 김 소장 임명으로 기존 계획의 집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시행을 위한 방안을 새로이 모색할 전망이다.

사찰음식의 참맛을 전수 받다

만다라 합창단원 포항 수인사 사찰요리 일일체험



7월 19일 부산·경남 만다라 합창단(단장 이상록) 단원 20명은 포항 수인사에 개설된 사찰음식 일일 강좌를 다녀왔다. 3년 전부터 사찰음식 강좌와 지역 독거노인 돌보는 사업을 진행 해온 수인사 박금화보살의 사찰 요리 강좌는 수강을 하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포항지역 유명 강좌다. 이날 강좌에서는 모든 요리의 기초 양념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맛 간장, 맛소금, 맛식초를 직접 만들어 보고 다양한 요리에 응용하는 방법을 전수받았다. 만다라 합창단(단장 이상록) 단원 20명은 포항 수인사 사찰요리 강좌를 마치고 경주 안압지 연꽃단지를 관람하고 단합대회를 겸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산 정각사=김윤경 통신원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충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교감 김재근 외 교직원 일동

불교의 선정 50

생활 중의 정념 7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념 수행

화령 정사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불교의 정념수행이 심리 치료에 응용

정념은 이제 불교인들의 수행 차원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소개되고 있다.

요즘은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의 수행법을 벤치 마킹하여 자기들의 종교와 접목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불교의 정념 수행법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효과가 좋은 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념 수행의 궁극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것이지만 이러한 높은 차원의 목적은 차치하고라도 사람들이 평소에도 정념 수행을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경감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 동서양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서양에서는 동양의 정신문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 중에서도 불교의 명상 수행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불교의 교리나 깨달음의 추구 및 불교의 신행 자체보다는 불교 수행에서 정념이 가진 정신치유적 효용성에 더 관심을 나타내었다.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의 메사추세츠 대학에서 정념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심리훈련과정을 개설한 이래 많은 서구인들이 불교의 정념 수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서구의 의학계와 심리학계에서는 정념수행의 테크닉으로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심리적 질병을 치료한 결과 현저한 효과를 보았으며 이에 대한 응용이 더욱 폭넓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정념을 학습효과와 중대하고 학생들의 주의 산만을 바로잡는 교육심리학적 면에서도 응용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정념수행의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현재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없매이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 근심하는 것도 아닌 지금 당장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으로서 특히 신경정신 계통 약물 사용자들에게 큰 효과를 보았다. 과도한 스트

레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념수행은 많은 효과를 보았던 것이다.

정신과 육체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과거 서양의학에서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여 다스리면서 육체의 질병은 정신적인 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마음작용이 육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눈치 채게 된 것이다.

서양의 의학계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 것에 불교의 선정수행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대념처경》은 심리 치료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불교경전이다.

정념으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가

현대인에게 있어 스트레스는 이제 생활전반에 걸쳐 있어 누구 하나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물질 위주의 생활이 되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각종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관계,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도 엄청 많다. 거기에다가 스피디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내심은 더욱 줄어들고 각종 산업공해와 환경오염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한 만만하지가 않다. 풍족한 식생활로 육체적인 수명은 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압력은 과거에 비해 엄청 높아졌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활력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할 때에는 온갖 부작용을 낳는다. 요즘 이유 없는 폭행이나 살인도 일종의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방위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다.

어떤 사람은 유유자적하게 스트레스를 이겨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의 조화를 잃어버리고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된다. 이럴 때에 정념 수행은 스트레스의 실체를 바로 보고 이것을 이겨내는 힘을 준다.

즉, 지나간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도 않는 것으로서 지금 당장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의사들은 스트레스 환자들에게 약물 복용을 권하지만 정념으로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방법은 자기에게 내재한 심신의 힘을 길러 스스로 이를 타개하는 것이다.

정념을 통하여 자신을 바로 바라봄으로써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관건이다. 어차피 이 사바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다. 세상의 그 어는 것도 나의 입맛에 맞추어 돌아가지는 않는다. 내가 세상과 환경에 맞추어야 하며 거기에 적응해야지 세상이 나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부조리와 악이 존재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있으며 살생하는 자는 여전히 살생을 즐기고 있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을까?

해답은 부처님 당신의 내면세계가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만의 온전한 삶을 영위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정념에 의하여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변하게 되면 외부환경에서 오는 각종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실체가 없는 무상한 존재의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붙들어두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정념을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

정념에 의한 치료 방법

정념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신경쇠약, 초조함, 불면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 모든 신경 질환에 유효하며 이런 것들이 정념으로써 극복되면 소화불량, 위장 장애, 만성 두통, 심지어는 암의 극복도 가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환자들을 정념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기초적인 호흡법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의 일어남, 통증 등등에 대하여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조하도록 훈련한다.

그런 다음 인내심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객관화시켜 보도록 훈련하며 자기에게 내재한 지혜와 능력을 믿으며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가진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오직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신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객관화와 함께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필요가 없다. 오직 바라볼 뿐이다. 좋다, 나쁘다, 싫다 등의 모든 분별을 배제하고 오직 지금 당장의 현상을 관조할 따름이다.

이러한 훈련이 거듭될수록 참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외부의 자극들은 실체가 없는 오직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실체가 없는 무상한 존재의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붙들어두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정념을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

정념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로서 우선 일상생활의 정돈이 필요하다. 불자라면 오계의 준수로 생활을 절도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일반 사람들의 경우라면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 것이 요구된다. 그런 바탕이 이루어지면 정념 수행도 한결 쉬워진다. 정념수행을 일상화하면 마음이 가라앉아 바깥 환경에 휘둘리는 일이 적을 것은 당연하다. 마음이 산란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신경 질환의 환자일 경우에는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정념에 대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비심을 지니고 이해롭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이 있으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초보자의 경우 진언염송이나 염불, 절 수행이 크게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마음이 정돈되면 좌선 수행을 하되 행선이나 와선도 적절히 배합하여 하게 되면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을 놓치지 않고 관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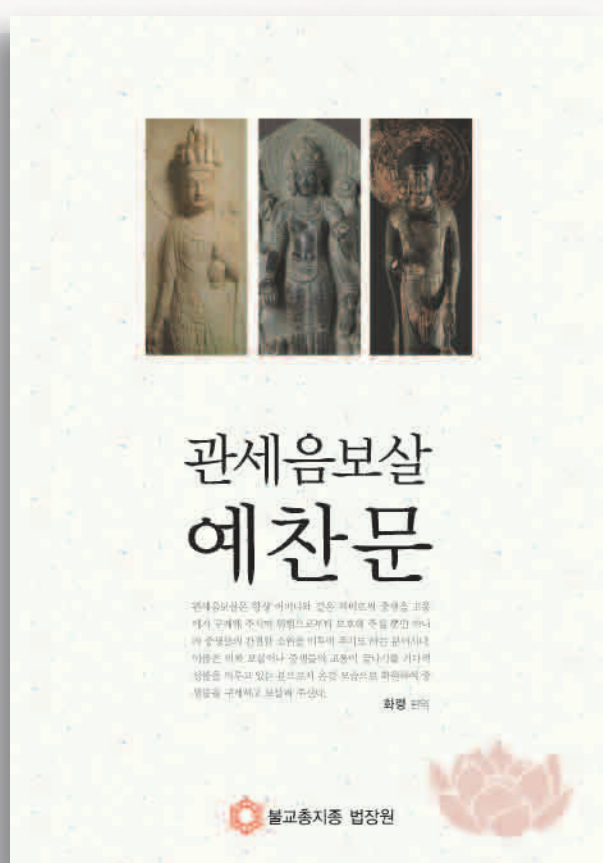
과거에도 없매이지 말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더 나아가서 좌선할 때만 정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매 순간에 정념이 생활화되면 그 어떤 정신질환도 예방이 되고 극복될 수 있다.

현대 심리치료의 대부분은 불교의 선정 수행에 힌트를 얻어 응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역시 정통은 불교 교유의 사마타와 위빠싸나 수행을 기본으로 계경혜의 삼학을 닦아 나가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길이다.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화령 편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수행법

총기45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

“하반기 49일 조상불공 및 국가 안위를 위한 불사 원만 회향”

서울·경인 교구
(교구장 법경 정사)

서울·경인 교구는 7월 16일 경기도 양평 SN 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시법사 주교 서강 정사의 사회와 벽룡사 주교 법일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법회는 훈향정공에 이어 통리원장 인선 정사의 효강 종령 예하 범어 대독, 서울·경인 교구장 법경 정사의 봉행사, 신정회 서울·경인 김은숙 지회장의 발원문 봉독의 순으로 이어졌다.

서울·경인 교구장 법경 정사의 봉행사에서 “우리 사람과 이웃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자세가 곧 방생에 임하는 자세이며, 못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체 방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며 중생을 아끼고 살피는 자비의 마음이 가득하길 서원했다.

이어 신정회 서울·경인 김은숙 지회장의 발원문 봉독에서 “오늘, 이 법회에서 못 중생들을 수없이 해한 죄를 깊이 참회 드립니다. 우리 무명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법의 지혜와 큰 자비를 주시옵소서.” 라며 그동안 부지불식간에 지은 살생의 죄업을 깊이 참회하기를 서원했다.

취재=충지사 이인성 통신원

부산·경남 교구
(교구장 정인화 전수)

부산·경남 교구(교구장 정인화 전수)는 7월 16일 경북 울진 엑스포장에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실보사 주교 덕광 정사의 사회와 밀행사 주교 도현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법회는 훈향정공, 종령 범어 대독, 교구장 인사말, 신정회 부산·경남 황윤희 지회장의 발원문 봉독으로 진행되었다.

신정회 부산·경남 황윤희 지회장의 발원문 봉독에서 “사생의 중생들이 저마다 타고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깊이 새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합니다.”며 생명 사랑의 간절한 바람을 서원했다. 법회 후에는 각 사원 별로 전통사찰 참배와 방생을 했다.

취재=정각사 김정애 통신원

대구·경북 교구
(교구장 안성 정사)

대구·경북 교구(교구장 안성 정사)는 7월 16일 전북 무주 종합수련관에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개천사 주교 우인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법회에서 하반기 49일 조상을 위한 불공과 국가 안위를 위한 불사의 원만회향을 서원했다. 교구장 안성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동참하신 교도 분들의 업장소멸과 복덕 증장을 함께 이루시기를 발원하며, 나와 이웃이 함께 자비를 나누는 불국토가 되기를 서원합니다.”며 법회를 통해 49일간의 정진의 결과를 얻기를 서원했다. 법회 후에는 준비한 도시락으로 공양을 나누고, 단체 율농이를 통해 교도간 우의를 다졌다.

취재=단음사 권순복 통신원

충청·전라 교구
(교구장 지정 정사)

충청·전라 교구(교구장 지정 정사)는 7월 16일 오전 11시 전북 부안 청소년수련관에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만보사 주교 승원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법회에서 신정회 충청·전라 민순분 지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오늘우리 교도들의 간절한 서원으로 모든 중생들이 교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고, 모든 중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보살님들의 가지력으로 굶어 살피옵소서.”라며 법회 참석 대중의 마음을 담아 지심으로 발원했다.

이날 법회 후에는 각 사원별로 중요 전통 사찰을 참배하는 시간도 가졌다.

취재=만보사 통신원 유복순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쉬운 번역!
✓간결한 표현!
✓읽기 쉬운 원문!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初發心自警文



화령 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총기 45년 불교총지중 청소년 한마음캠프

꿈과 희망을 위한 날개 짓으로
자유의 하늘을 마음껏 날다.

용인에버랜드=사진 김병구 소장.



▲ 입제식에 참석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참가자들



▲ 시원한 워터파크에서



▲ 아침 정공 시간



▲ 입제식에서 훈향정공하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현동로 590길 63 리엔마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문의: 02-445-2326



▲ 김찬호 부소장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강연



▲ 참가자들의 신나는 장기 자랑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후기 발표



▲ 인형선 소장의 '소리와 명상' 강연



▲ 프로젝트를 이용한 여행후기 발표



▲ 캠프에 참가한 중립 동해중학교 학생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서초 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법길 정사
(길교연구소장/법전사 수교)



▲ 그림1) 금강계만다라의 이취회 (흰색 네모)

이취회(理趣會)는 그림1)과 같이 금강계 구회만다라(九會曼荼羅) 가운데 오른쪽에서 맨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호에서 살펴 보았던 일인회(一印會)의 오른쪽에 해당한다. 일인(一印)은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사인(四印)은 사만다라(四曼荼羅) 내지 사존(四尊)을 말하는데, 그 사존(四尊)은 37존을 대표하는 존(尊)이다. 즉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4방(四方), 4사선(斜線), 4외곽에 각각 배치되어 있는 사바라밀보살(四波羅蜜菩薩)과 사대보살(四大菩薩), 사공양보살(四供養菩薩)들을 말한다. 그 사인(四印)은 중층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12존의 보살들이 사인회(四印會)를 이루고 있다.

중앙의 갈마회(羯磨身會)에서부터 시작된 금강계의 구회만다라(九會曼荼羅)는 삼매야회, 미세회, 공양회에 이르는 동안 37존이 배치되었지만 사인회(四印會)에 이르러서는 13존으로 축약되고, 또 그 다음 일인회(一印會)에서는 1존으로 단일화된다. 그 일존(一尊)이 바로 비로자나불이며, 이를 대신하여 경전에서는 금강살타가 모셔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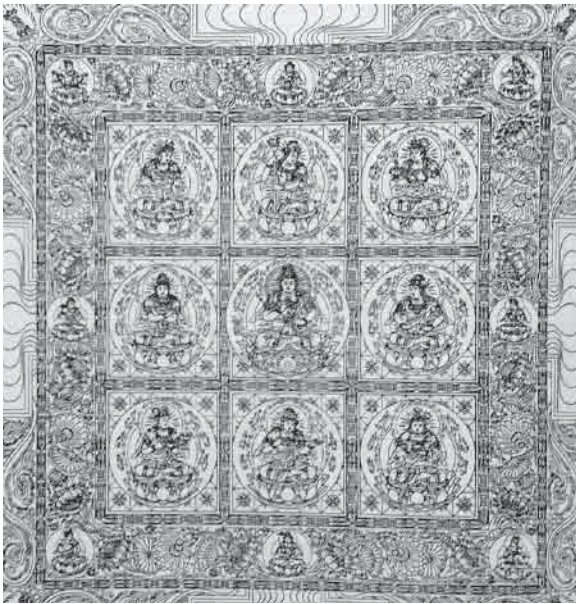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배대 속에서 이취회(理趣會)에 이르게 되면, 전혀 다른 구조를 띠게 된다. 이전까지는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사방(四方)의 사불(四佛), 사보살(四菩薩)과 각각의 친근보살들이 원륜(圓輪)을 이루며 사방 팔방에 중층적으로 배치된 구조를 띠었지만, 이취회에 와서는 기존의 존상(尊像)의 배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으로, 중앙에 비로자나불 대신에 금강살타를 주존(主尊)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원륜(圓輪) 대신에 그림2)와 같이 사각의 방단(方壇)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즉 원륜(圓輪) 대신에 사각의 방단(方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단도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분된다. 안쪽의 방단은 가로세로로 모두 9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9개의 방단 속에 9분의 보살이 모셔져 있다. 기존처럼 원륜(圓輪)이 아니라 방단(方壇)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구조이다.

또 바깥쪽의 방단(方壇)에는 모두 8분의 보살이 모셔져 있는데, 사방(四方)과 네 모퉁이에 각각 4분의 보살이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취회는 총 17분의 보살이 모셔진다. 이러한 배치는 『금강정경』에 따른 배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경전인 『이취경』에 따라 배치된 것이다. 『이취경』은 흔히 『반야이취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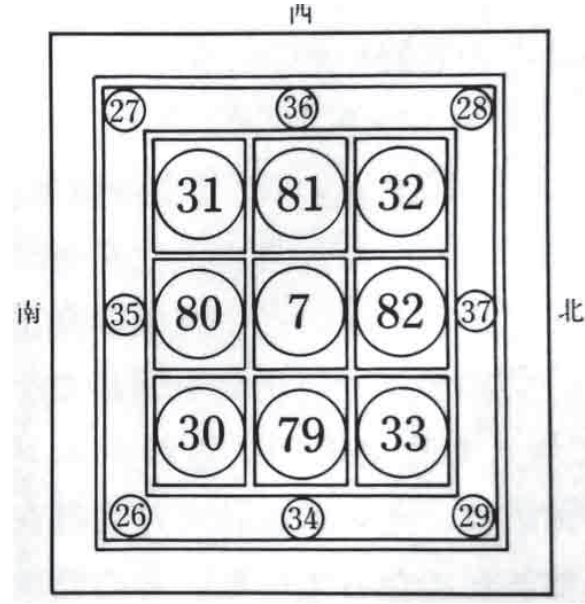
라 부르기도 하는데, 모두 갖추어서 부르면 『최상근본대라금강불공삼매대교왕정』이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는 금강계만다라가 이취회(理趣會)라 할 수 있는데, 이취회는 기존의 만다라가 『금강정경』에 의해 그려진 것과 달리 『이취경』에 근거하여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이취회(理趣會)라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취경』의 주된 내용은 인간의 본질적인 생(生)의 에너지가 금강살타의 보리심으로 표현되고, 보리심의 증득을 위하여 그 에너지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바로 4보살녀(四菩薩女)의 등장이며, 그 보살녀와의 관계에서 대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대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곧 비로자나불이 된다는 것으로, 금강살타와 사보살녀(四菩薩女)의 합일(合一)이 완성됨으로써 비로자나불의 경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지혜는 금강살타와 사보살녀(四菩薩女)의 교합(交合)조차도 청정한 경계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후기밀교의 탄트라로서 좌도밀교로 오해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이취경』은 대승불교의 전통에 따라 미혹된 자의 깊은 곳에 부처가 내재(內在)되어 있다는 사교에 따라 중생의 보리심을 발현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부처 또는 보리심의 내재는 대승불교의 여래장사상에 기인하고,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유식사상(唯識思想)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대승불교의 번뇌즉보리(煩惱即菩提)라는 사교를 『이취경』은 철저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또 여기에는 중생이 곧 부처라는 『화엄경』의 사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취경』은 중생의 번뇌가 다하는 곳에서 부처를 발견하고자 한다. 그 방편이 사보살녀(四菩薩女)의 배치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금강살타와 사보살녀의 관계가 핵심이 되는데, 이취회는 중생의 번뇌와 애욕의 에너지를 성불과 보리심의 기반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취회에서 사보살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그림2) 이취회의 구조



▲ 그림3) 이취회의 존상 배치와 존명(尊名)

7. 금강살타보살	〈內四供養菩薩〉
〈外四供養菩薩〉	〈內四供養菩薩〉
26. 금강희보살	30. 금강소향보살
27. 금강만보살	31. 금강화보살
28. 금강가보살	32. 금강등보살
29. 금강무보살	33. 금강도향보살
〈四攝菩薩〉	〈四菩薩女〉
34. 금강구보살	79. 육금강보살
35. 금강색보살	80. 촉금강보살
36. 금강쇄보살	81. 애금강보살
37. 금강령보살	82. 만금강보살

이취회(理趣會)는 다른 구회만다라와 달리

그 조적인면에서도 파격적이고

역할과 공능에서도 의미가 다르다

사보살녀에 대해서는 이취회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난 뒤에 얘기하고자 한다. 이취회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3)과 같이 중앙의 금강살타를 중심으로 안쪽의 사각 방단(方壇)에 8보살이 둘러져 있고, 바깥쪽 방단(方壇)에는 사방(四方)과 사선(斜線)에 8보살이 배치되어 있다. 안쪽의 8보살은 동서남북 사방(四方)의 육금강보살(六金剛菩薩), 애금강보살(愛金剛菩薩), 촉금강보살(觸金剛菩薩), 만금강보살(慢金剛菩薩)의 사보살녀(四菩薩女)와 대각선 방향의 4사선(斜線)에 있는 금강소향보살(金剛燒香菩薩), 금강화보살(金剛華菩薩), 금강등보살(金剛燈菩薩), 금강도향보살(金剛塗香菩薩)의 내사공양보살(內四供養菩薩)이다. 성신화나 기타 구회만다라에서는 이들이 외사공양보살(外四供養菩薩)로 등장하지만, 이취회에서는 반대로 내사공양보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취회가 보리심을 얻기 위한 방편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금강계만다라에서 이취회는 기존과 다른 독특한 교설을 펼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깥 쪽의 사각 방단(方壇)에는 육금(四方)으로 금강구보살(金剛鉤菩薩), 금강삭보살(金剛索菩薩), 금강쇄보살(金剛鎖菩薩), 촉금강보살(觸金剛菩薩), 만금강보살(慢金剛菩薩)이 배치되고, 대각선 방향에는 금강희보살(金剛嬉菩薩), 금강만보살(金剛鬘菩薩), 금강가보살(金剛歌菩薩), 금강무보살(金剛舞菩薩)의 외사공양보살(外四供養菩薩)이 배치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도 원래는 내사공양보살인데 이취회에서는 외사공양보살로 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중앙의 금강살타는 지난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로자나불을 대신하여 주존(主尊)으로 모셔지고 있다.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에서는 비로자나불이 모셔지고 있지만 『금강정경』에서는 금강살타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금강살타와 비로자나불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비로자나가 되었든 금강살타가 되었든 중생의 입장에서는 중

요하지 않다. 비로자나불의 별문별덕(別門別德)으로 나뉜 것이 금강살타보살이며, 이 보살이 결국 비로자나불의 또다른 모습이므로, 이들은 동체(同體)이자 별덕(別德)인 동시에 또한 이체(異體)이면서 동덕(同德)이다. 즉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므로 금강살타가 곧 비로자나불이며, 비로자나불이 금강살타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금강살타와 비로자나불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금강살타의 공능(功能)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금강살타는 보리심을 일으켜 지혜를 증득케 하는 보살이며, 그 지혜는 대지혜(大智慧)로서 비로자나불을 가리키며, 비로자나불의 지혜를 일러 일체지(一切智), 금강지(金剛智)라 표현하는데, 보리심을 일으켜 대지혜를 얻는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공능을 지녔고 그 역할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을 대신하여 금강살타가 주존(主尊)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생의 입장에서는 대지혜를 증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금강살타가 맡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 결과가 비로자나불이 되기 때문이다.

금강살타를 중심으로 사방에는 육금강보살(六金剛菩薩), 애금강보살(愛金剛菩薩), 촉금강보살(觸金剛菩薩), 만금강보살(慢金剛菩薩)이 배치된다. 이들은 보리심을 일으켜 지혜를 증득케 하는 금강살타의 보좌역을 하는 여존(女尊)들이다.

이 가운데 동방의 육금강보살(六金剛菩薩)은 활과 화살을 갖추고 있는 애욕(愛慾)의 신(神)으로, 그리스 신화의 에로스나 로마 신화의 큐피트에 비유되는 신이다. 애욕(愛慾)은 상대를 사랑하는 욕망으로, 이 애욕은 청정한 것이며 보살의 경지로 표현된다. 그 애욕은 생명활동의 본원(本源)으로서 불타(佛性)를 추구하는 욕망과 같은 것이다. 대락(大樂)을 추구하는 애욕(愛慾)을 말하는 것이다. 애욕을 성불로 승화시키는 대락사상(大樂思想)을 의미하고 있다.

남방의 촉금강보살은 법열(法悅)의 대상과 접촉케 하는 보살이다. 그 법열(法悅)은 깨달음의 경지로서 사랑의 화통이 결정에 이르렀을 때 느끼는 환희를 여기

에 비유한 것이다. 즉 깨달음의 경지를 이해하기 쉽게 성적으로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한역(漢譯)에서는 ‘촉(觸)’으로 해석하였다. 산스크리트는 Kāma이다. 그래서 앞의 육금강보살이 애욕(愛慾)에서는 ‘촉(觸)’으로 해석하였다. 산스크리트는 Kāma이다. 그래서 앞의 육금강보살이 애욕(愛慾)에서는 ‘촉(觸)’으로 해석하였다. 산스크리트는 Kāma이다. 그래서 앞의 육금강보살이 애욕(愛慾)에서는 ‘촉(觸)’으로 해석하였다. 산스크리트는 Kāma이다.

서방의 애금강보살은 일체중생을 끌어안고 보리(菩提)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보살이다. 그래서 사랑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며, 앞의 애욕(愛慾)을 행동으로 옮기는 보살이다. 그 행동은 남녀의 포용으로 묘사된다. 이는 성적인 행위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으로,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에 비유된다. 사랑의 행동은 자비의 실천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비심의 발현을 말하는 것이다.

북방의 만금강보살은 중생의 오만불손(傲慢不遜)한 마음의 작용에 비유된다. 이는 보리심을 역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애욕을 일으켜 접촉하고 결국 한 몸이 되어 느끼는 충족감을 오만불손으로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오만불손은 실제로는 보리심의 증득과 자비심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깨달음의 경지에서 지혜의 눈으로 보면, 오만불손마저도 부처의 자비로운 작용력과 동일한 것으로 승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설명하면, 현실적으로 남자가 성관계를 가진 후에 느끼는 충족감을 만(慢)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상적으로는 성적인 충족감은 깨달

음의 경지, 자비심으로 승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보살이 바로 만금강보살이다.

이러한 사보살녀(四菩薩女)의 배대는 남녀의 애욕→신체적인 접촉→구체적인 행위→충족감으로 표현되지만, 비밀성과 상징성의 의미에서는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켜 깨달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외에 이취회에 등장하는 보살로는 안쪽 방단의 내사공양보살과 바깥쪽 방단의 사섭보살과 외사공양보살이 있다. 내외사공양보살은 금강살타와 사보살녀(四菩薩女)간의 상호공양을 의미하고, 사섭보살은 보리심으로 이끌기 위해 중생을 인도하는 보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취회(理趣會)는 다른 구회만다라와 달리 그조적인면에서도 파격적이고 역할과 공능에서도 의미가 다르다. 금강살타가 주존인 것도 다르지만, 17존의 상호관계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그 비밀성과 상징성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욕(性慾)을 성불의 에너지로 보고 있다는 점과 세간적인 측면에서 중생이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출세간적인 측면에서 대승보살도와 보리심과 자비심의 발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옆에 있는 중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감싸안고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지를 이취회는 말하고 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또한 초기불교의 무상(無常)과 연기(緣起)의 진리, 대승불교에서의 공(空)과 무자성(無自性)을 밀교에서는 보리심(菩提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불교와 밀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원수를 자비로 받아들이 수 있는 마음이라야 진정한 진언수행자라 할 수 있다.

<다음호에서는 ‘항삼세회’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유물로보는 비로자나불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46호
동악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東岳寺石造毘盧遮那佛坐像)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49 (동본리) 동악사



▲ 동악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악사(東岳寺) 보광전에 모셔져 있는 불상으로,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옮겨온 것이다.
얼굴은 둥근 편이며 눈썹 사이에는 백호(白毫)가 있

할 수 없다.

자료제공=문화재청

다. 눈은 반쯤 뜨고 있으며, 코는 석고로 보완하였다. 귀는 길지만 어깨에는 닿지 않으며, 머리에 바짝 붙혀 만들었다.
목에는 3줄의 주름인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으며, 왼쪽 어깨에만 걸친 옷에는 옷주름이 나타나 있다. 오른손이 왼손 검지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손모양을 하고 있어 이 불상이 비로자나불임을 알 수 있다.
하체는 넓게 표현되어 안정감이 있으나 어깨가 좁아 당당한 감이 없다. 불상 전체에 흰 가루가 두텁게 칠해져 있어 세부 묘사는 확인

VISUAL 불교총전

제 86 화

현명한 사람

글/그림 정수일

cafe.daum.net/carissam

머리색은 사람

참 더운 날씨구나, 어디 시원한 그늘에 가서 더위를 피하자.

참 더운 날씨네,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분수! 더운데 잘 됐다.

근데, 저기서 뭇들 하는거지?

분수! 더운데 잘 됐다.

근데, 저기서 뭇들 하는거지?

동전을 던져서 그릇 안에 넣으면 행운을 얻는다고?

왜 동전을 물 속에 던지세요?

동전을 던져 그릇 안에 넣으면 행운의 막걸리를 준답니다.

동전을 던져서 행운을 얻는 것보다 저 동전들을 건져내는 것이 더 빠르게 행운을 얻는 게 아닐까?

들어갈까?

동전을 던져서 행운을 얻는 것보다 차라리 직접 건져야지.

그, 그럼 주인에게 혼 날 텐데!

바보! 그건 절도지. 하마터면 악의 유혹에 빠질 뻔 했군.

500원 버릴 뻔 했군.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마음을 내어 조폭이라도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떤 놈이야!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쳐선 안 된다. 경찰에 고발 당하고 싶어?

깜짝이야!

내용참조: "불교총전" 자기에 대한 덕의편 371p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27. 보라수(寶螺手) 진언

옴 상아레 마하 삼만염 사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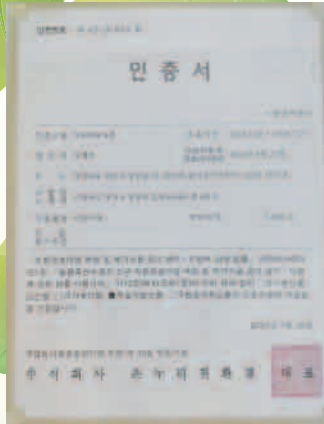
만약 일체의 선한 천신들을 부르려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대동농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896번지
연락처 **010-3537-3090**
사원 054-333-0526, 지현 010-5531-7950
불교총지중 단음사 신도: 정점락 각자

100% 국내산 친환경 아로니아 (블랙 초코베리)

최상품
1kg 12,000원
무료배송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성분 및 효능

- **시력개선 효과** ● **면역력, 기억력 강화** ● **혈관질환 예방과 개선** ● **노화방지, 다이어트 효과**
- 지구상 현존하는 과수 중 안토시아닌 성분 (블루베리의 4배, 크린베리의 10배, 복분자의 20배, 포도의 80배)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연구결과 심혈관(동맥경화), 뇌신경, 각종 암, 당뇨, 위장질환, 신경질환, 시력장애, 비만, 불임, 류마티스, 강장 등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체계를 형성하는데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 용 방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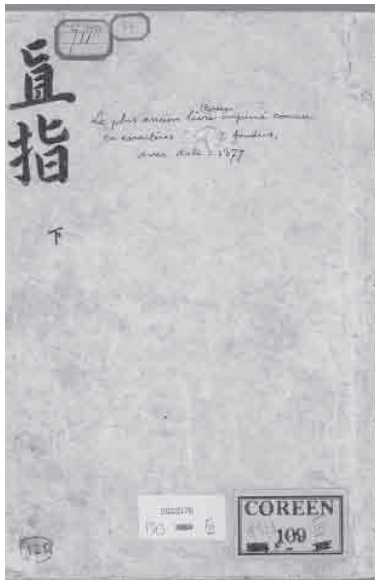
- 생과로 먹을 시에는 하루 20~30알 내외로 먹어주면 좋다.
- 요구르트나 우유 또는 꿀을 첨가해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다.
- 분말로 드실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먹거나 샐러드나 아이스크림 등 음식 먹을 때 뿌려 먹으면 된다.
- 원액을 마실 경우 30~50ml 를 매 식사 20~30분 전에 물에 타서 마시기를 권장한다.



‘직지’ 금빛 씨앗이 자란다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첫 선

‘직지, 세상을 깨우다’ 주제, 9월 1~8일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지서 개최

제6회 유네스코직지상 수상자 ‘이베르 아카이브’ 선정



▲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직지 하권 표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를 기리는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이 9월 1~8일 청주 직지문화특구에서 개최된다. 직지의 고장 청주시는 2001년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자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계승하고자 2003년부터 ‘청주직지축제’를 여덟 차례에 걸쳐 개최해왔다. 2005년부터는 유네스코 직지상을 제정해 세계기록유산 분야에서 복원·보전에 이바지한 기관을 선정해 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각각 운영되던 청주 직지축제와 유네스코 직지상이 올해부터 하나로 통합돼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로 태어났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타당성 심사에 응모해 필요 예산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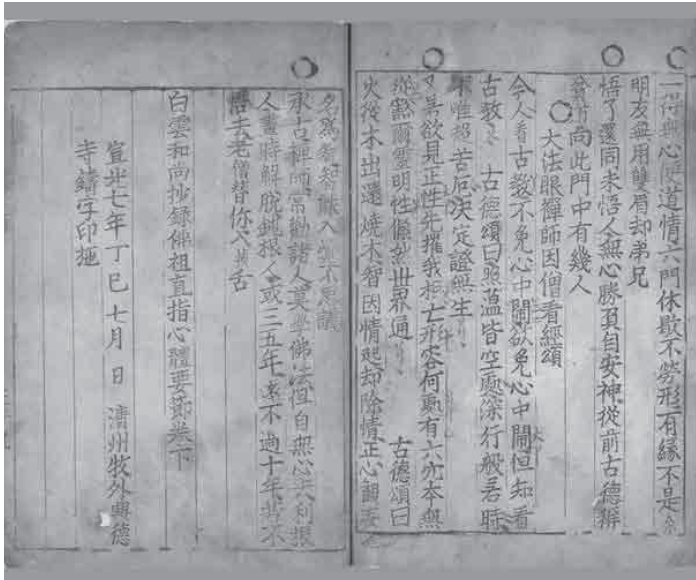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의 주제는 서양의 금속 활자보다 수십 년 앞서 발명되었다고 하는 단순비교식 관점에서 벗어나 직지로 인한 지식정보의 확산, 나아가 정신세계의 지평 확장과 같은 직지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비롯되었다.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속으로

올해 첫 발을 내딛는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의 공식 개막식은 9월 1일. ‘직지, 세상을 깨우다/ILLU. Enlightening The World’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주제전시를 비롯해 골든씨드 라이브 쇼, 야간 직지 미디어 쇼, 책의 정원 박물관, 직지 놀이터, 공식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주제전시의 주제는 ‘직지, 금빛씨앗’, 과거와 현재, 미래로 구분해 아날로그부터 디지털,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직지를 재구성한 작품이 전시된다.

청주 예술의 전당 대 전시실, 소 1-2 전시실, 대공연장 1-3층 로비, 외부 터널(예술의 전당과 전시실을



▲ 직지 하권 내부

잇는 통로)이 전시 장소다.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 11개국에서 디자이너 론 아라드, 예술가 윌리엄 켄트리지, 인테리어 디자이너 에이브 로저스, 사진작가 배병우, 타이포그래피 안상수,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건축팀 노선 아키텍처 등 35개 팀이 참여해 직지의 기록 유산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작품을 출품했다. 주제전시 공간 연출은 영국왕립예술학교(RCA) 인테리어학과장을 지낸 에이브 로저스가 맡았다.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로 꼽히는 론 아라드가 ‘직지 파빌리온’을 발표하며, 전시를 이끈다. 전시장 밖에서 관객들을 처음 맞이하는 ‘직지 파빌리온’은 직지의 제본 형태인 선장본에 영감을 받아 옛 책을 엮어 놓은 형태를 하고 있다. 모듈러 형식으로 조립, 해체, 설치가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직지 파빌리온’ 안에는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소통의 전시가 될 전망이다. 행사 이후엔 청주시가 소장해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상징하게 된다.

타이포그래피인 안상수 작가는 예술의전당 건물 전면에 28m 길이의 대형 파사드를 설치한다. ‘알파에서 히우까지’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생각의 전환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창조기’들을 조망한다. 시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α’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한글의 ‘ㅎ’이 된다는 설명이다.

바깥 공간에선 알파벳을 그린 뒤 그 위에 다시 그림을 겹쳐 그리는 작업을 하는 필 뎀슨이 멀티미디어 작가이자 패션디자이너인 브리짓 스테푸티스와 함께 제작한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구텐베르크 갤러리’ 등도 설치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사진작가 배병우의 팔만대장경과 해인사의 풍광 사진이 관객을 반긴다. 또 명화를 미디어작품으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는 직지의 한 구절에 움직이는 효과를 넣은 미디어 작품을 선보여 문화재의 현대

적 재해석을 시도한다.

직지를 매개로 인쇄술 발달사를 볼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된다. 금속활자본 직지가 발견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 공유가 이뤄졌는지를 보여주고 구텐베르크 인쇄기 복원본, 당대 종교행사에 사용한 구텐베르크 반사경, 구텐베르크 면죄부 등이 전시된다.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직지 원본, 훈민정음해례본, 독일 구텐베르크42행성서 공동전시 실현을 위한 조직위의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반인을 위한 예술의 장도 펼쳐진다. ‘꿈의 직지교’는 시민이 청주 시내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해 하나의 합동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페스티벌 기간 내내 관객의 참여로 직지문화특구 직지교가 만들어진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라 ‘골든 씨드 라이브쇼’

퍼포먼스와 강연이 합쳐진 골든 씨드 라이브쇼는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이 자랑하는 명사 특강 프로그램이다. ‘과거에서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스웨덴 우주국의 천체과학자 루이스 닥트넬의 ‘직지: 지구 멸망 후 문명을 재건하는 방법’ 스미마츠 킨틀 개발자 제이슨 머코스키의 ‘전자책의 예술과 혁신’, 스웨덴 3대 산업디자이너 론 아라드의 ‘Whats and Ifs’ △일 루서니스트(마술가) 이은결의 ‘마술, 기술을 만나 예술이 된다’ △스타 역사 강사 이다지의 ‘세상을 바꾼 결정적 사건과 선택’ △식물 세밀화가 신혜우의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의 ‘i-Violiner’ △연예인 솔비(권지안)의 ‘Fiction & Non-Fiction’까지 8명의 특강과 퍼포먼스가 마련된다. 예술·과학·기술·사상을 중형무진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직지의 새로운 가치를 생각해보는 지식놀이터. 9월 3~4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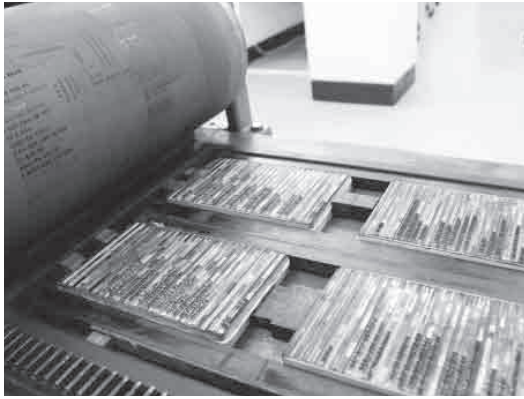
정지용 감독의 다큐 ‘직지를 찾아서’ 첫선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작품이 공개된다. 정지영 감독의 다큐 영화가 그 주인공이다.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주제로 한 ‘직지를 찾아서’는 9월 1일 개막하는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에서 첫 선을 보인다. 주인공이 프랑스국립박물관에서 우연히 직지를 만나면서 금속활자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유럽 국제영화제에도 출품될 예정이다.

2년마다 직지코리아 행사를 열고 국내 행사가 없는 해에는 해외 순회 전시를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6회 유네스코직지상 ‘이베르 아카이브’ 선정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막식에서 제6회 유네스코직지상 시상식이 열린다. 지난 20일 직지코



▲ 직지코리아 전시품

리아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승훈 청주시장)는 제6회 유네스코직지상 수상자로 ‘이베르 아카이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베르 아카이브’는 중남미 국가들이 기록 유산 보존 등을 협력하기 위해 1999년 설립한 기관으로 기록 유산의 디지털화 및 교육, 연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는 화상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베르 아카이브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디지털화 및 교육, 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 기록 유산 보존과 접근을 위한 혁신적 활동을 수행하여 중남미 지역에 끼친 영향을 높이 평가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3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기관 공모, 선정 등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직접 주관한다. 지금까지 체코국립도서관(2005년), 오스트리아 과학학술원 음성기록보관소(2007년),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2009년), 호주국가기록원(2011), 멕시코 아다비(2013)가 수상했다.

직지상 시상식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2,700여 개의 세계 시상제도를 평가하는 내부 보고서에서 4위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또한 이번 시상식에는 30여 개국 40여개 기관이 신청 접수해, 횡수를 거듭하며 인지도와 권위가 높아지고 있다.



▲ 직지축제 체험장

직지코리아의 기본로고는 직지활판인쇄본 발견의 계기가 되었던 ‘뒤집어진 날 일(H)’ 활자를 모티브로 한 황금씨앗이다. 황금씨앗의 모서리 끝이 열려 외부와 이어져 있다. 이는 직지가 세상을 깨운다는 직지코리아의 주제를 상징한다. 행사를 구성하는 각각의 콘텐츠 또한 직지코리아의 주제와 닿아 있다.

연령별 교육프로그램 제공

대상자를 연령별로 구분해 유·초·중·고·대학·성인용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단점을 극복하고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놀이의 컨셉으로 제작했다. 물총놀이, 부두마블게임대회, 카톡 빨리 날리기 대회 등 누구나 간단히 접하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내용이다.

www.jikjia.com, 043-271-9362

한편,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박노문)은 고려금속 활자 복원을 기념한 ‘활자로 피운 꽃, 직지’ 특별전을 8월 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에 금속활자로 『직지』를 간행한 이래 흥덕사에서 다시 활자를 복원해 직지 재탄생을 알리는 전시다.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이 열리기 전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청주고인쇄박물관 ‘활자로 피운 꽃, 직지’특별전으로 달려보자.

강지연 구성작가

직지코리아의 기본로고 ‘황금씨앗’

직지심체요절은?

원명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다. 약칭으로 <직지심경>이라고도 한다. 현재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 고려 시대의 승려인 백운화상이 고려 공민왕 21년에 부처님과 큰 스님들의 가르침과 대화, 편지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편찬한 것을 백운화상의 제자들이 고려 우왕 2년(1377)에 충청북도 청주의 흥덕사에서 인쇄했다. 직지

심체요절은 서양의 구텐베르크의 ‘42행 서서’보다 78년 앞선 것으로 증명돼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현재 이 책의 하권만 남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72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도서관의 해 기념전시회에 출품되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받았다. 사찰 이름의 재래방법으로 활자를 만들어 인쇄한 것으로, 목활자가 섞이고 크기와 모양이 고르지 않으나 그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서원성취를 위하여 진언염송과 함께 진언사경을 실천해보십시오

원하는 서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



역음 : 법경 중사 (밀교연구소장) / 편찬 :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 불교총지중 / 인쇄 : 동림기획
면수 : 250쪽 / 법보시 가격 : 1권당 3,000원
구입문의 :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02)552-1080~3

16종의 진언사경집으로 일체재난을 소멸하고 일체서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서 원 사 항 >

1. 배우자 및 좋은 사람 만남 발원
2. 사업 원만 발원
3. 취업 원만 발원
4. 건강 원만 발원
5. 선망 부모 및 조상 영식 천도 발원
6. 학업 및 수능 시험 원만 발원
7. 업장 소멸 발원
8. 경제난 해탈 및 생활 향상 발원
9. 아기 잉태 원만 발원
10. 참회 발원
11. 가족 등 재산 매매 발원
12. 관재 구설 소멸 및 승소 발원
13. 일체 서원 성취 발원
14. 지해 충명 발원
15. 부부 및 가족, 동료 화합 발원
16. 병고소멸 및 수술원만 발원

불교총지중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중.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총기 45년 새로운 모습으로
교도님들과 전국의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흥포를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도님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중



불교총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928

Tel: 02,552,1080~3

Fax: 02,552,1082